

무용안무가의 예술지원사업 인식유형에 관한 Q방법론 연구*

고신영** 한양대학교

본 연구는 무용현장에서 실연과 창작의 경험이 있는 무용안무가 30명을 중심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참여하여 예술지원사업에서 얻게 된 경험과 인식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다변화되는 예술지원사업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연구 Q방법론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1유형은 작품창작형으로 직접적인 지원이 온전히 작품에 중요도로 결부되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제2유형은 작품경제형으로 지원에 대한 기획과 투자의 중요도가 높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제3유형은 예술가의 행정형으로 인건비와 작품의 규모가 작품의 질적인 향상 여부를 결정하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제4유형은 예술가형으로 지원사업을 통해 예술가의 자부심과 작품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예술지원사업은 정부, 특정 재단의 목적과 진행 방식에 따라 공고되고 이에 예술가들이 지원하고 선정되는 수순으로 진행되어왔다. 이에 대한 무용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원사업의 방향에 영향을 주었는지는 알려진 바 없다. 이에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예술지원사업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며, 지원정책의 제도적 개선과 혁신의제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주요어 : 무용안무가, 무용예술지원, 예술지원사업, 인식유형, Q방법론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문화예술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진행한 코로나-19 피해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취소되거나 연기된 문화행사가 총 1,614건에 이르고, 예술인의 88.7%가 "수입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이는 예술인들이 열악한 경제상황에 놓여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는 한계가 있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타 예술장르와 마찬가지로 무용예술 창작 현장에서도 지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긴급지원사업으로 일시적 지원은 되었으나 장기적으로 폭넓은 지원의 혜택과 그 실효성을 보려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용안무가 중심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이나 유형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기업 메세나 활동을 중심으로 한 연구(김정인, 2014)에서는 예술인에게 직접적인 지원뿐 아니라 예술 후원자나 특히 기업에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무용계에서 수행된 예술정책 연구에 따르면 전문 무용예술 지원 정책은 국내 및 해외진출을 위한 창작활동과, 신인 양성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김운미, 2017; 김지영, 김형남, 윤정은, 2015; 차은주, 김종희, 2018; 황혜영, 20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 지원사업에서도 전통예술분야만을 위한 지원사업 및 전

* 이 논문은 고신영(2021)박사학위 논문에서 발췌하였음

** 에리카한양대학교 예체능대학 무용학과 강사, sy00282@hanyang.ac.kr

통예술을 현대적으로 재창작한 창작 콘텐츠의 개발과 실무교육과 같은 전통예술 분야에 보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김운미, 2017). 이것은 무용예술작품의 변화, 발전에 기여하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나 우혜영(2011)은 무용정책에 관해서서 무용예술만의 특수성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장르와 함께하는 공연 형태로 구성되어 시행됨으로 인하여 지원예산 투입 대비 생산성과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 중앙에 비해 지역의 경우 무용 분야의 창작여건이 열악하고 공연활동 역시 중앙과 지역 간 편차가 지나치게 크게 난다는 문제점을 비판한 바 있다.

또한 사업목적별 전문 심의위원 선정과 구성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점이 다수의 연구로 드러났다. 예술지원사업의 참여 경험이 있는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신규 공연예술 지원사업에 대한 탐색적 연구(한하경, 김인설, 2020)로 실감형 기술의 도입은 여전히 높은 심리적·물리적 기회비용의 결과도출과, 시각예술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고정민, 장신정, 장윤정, 2019)에서는 지원 방법과 지원사업의 특수성과 지속가능한 시각예술창작 산실 정책의 수립, 예산활용의 자율성 부여 및 예산확충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윤나영(2018)연구에서는 청년무용지원사업의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청년무용가들의 창작 현장을 살펴보기 위하여 수혜 경험과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청년들은 관객의 기대에 부합하는 공연과 작품 창작 단계에서부터 관객 만족을 위한 공연에 대한 긍정적인 책임감과, 반대로 평론과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언론·매체가 한쪽으로 편중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백지연(2009)은 젊은 안무가들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보완과 개선점을 지적하면서 활발한 예술 활동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무용안무가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무용안무가의 작품 스타일 및 작품경향에 대한 연구(김미희, 2016; 유승관, 2016; 이경희, 2005; 조영미, 2020)와 무용안무가의 심리적인 요인을 다룬 연구(강명선, 2004; 강영아, 2012; 오하진, 홍준희, 2019; 장지연, 윤수미 2019)등 무용의 움직임과 안무형태에 본질적인 무용예술의 방향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안무가가 예술활동을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여겨지는 예술지원사업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무용지원사업의 문제점 제기와 실효성이 요구되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무용예술 지원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다양한 장르나 신인, 중견사업에 관한 연구까지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무용예술의 발전이 확대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현장에서 실연과 창작의 경험을 하고 있는 무용안무가를 중심으로 예술지원사업을 통한 경험과 인식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다변화되는 예술지원사업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용전문가 3명과 전문기관 관계자 2명, 지원사업 수혜경험이 있는 무용안무가들 30명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 1) 무용안무가들의 예술지원사업에 대한 인식유형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 2) 무용안무가들의 예술지원사업 인식유형별 특성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및 절차

본 연구는 예술지원사업을 받은 무용안무가를 대상으로, 지원사업 혜택과 경험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주관적 인식의 유형을 파악하고 인식유형별 특성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에 준하여 주관성을 기초로 한 Q방법론을 적용하여 설계하였다. 그들의 경험과 인식을 내적 준거틀(Innerframe)에 기초하여 대상자 스스로 진술문을 비교하면서 중요성에 따라 배열하고 그들의 주관성을 모형화하여 표현하도록 하였다. 인식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Q방법론(Q-Methodology)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각 기관들의 예술지원사업에 대한 문헌과 선행연구를 고찰한 후, 무용전문가 3명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들의 행정 전문가 2명과 회의를 거쳐, 개방형 설문지를 구성하고, 개방형 질문지에 대한 문항을 구분하여 진술문들을 수집한 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무용안무가들의 인식과 경험에 대한 연관성을 토대로 문항을 구성하여 Q표본(진술문)을 선정한다. Q분류는 번호를 부여한 진술문이 적힌 카드를 분류 척도에 맞게 연구 대상자인 P표본의 생각에 따라 분류하도록 한다. 분류된 자료는 PQ Metho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각 유형을 도출한다. 연구 절차와 과정을 도식화 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절차 및 내용

| | |
|----------|---|
| 문헌연구 | ·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구조화 자료조사 · 무용전문가(교수)3명, 행정전문가 2명 총 5명과 개방형 질문지 구성 |
| | 〈1단계〉 Q모집단 구성 |
| | · 정해진 모집단을 통해 문항의 개방형 질문지와 1:1 면담 실시 · 응답된 Q진술문 구성 →1차 문항 추출→2차 문항 추출→3차 문항 추출 |
| | 〈2단계〉 Q표본 선정 |
| | · 표집된 문항을 5개 범주로 분류하여 진술문 확정· Q카드 제작(4.5cm X 4.5cm) |
| | 〈3단계〉 P표본 선정 |
| Q방법론적 접근 | · 무용안무가 30명 |
| | 〈4단계〉 Q분류 및 추후 면담 또는 인터뷰 |
| | · 3개의 진술문을 통한 Q표본 문항 수에 맞는 Q분류판 제작 · 연구 대상자의 중요도에 따라 9점 척도(-4에서 +4까지) 진술문 배치 및 강제분류, 양극단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를 기록 |
| | 〈5단계〉 자료처리 및 분석/ 타당도 및 신뢰도 검사 |
| | · PQ 프로그램에 맞는 data-file 작성과 Q요인분석 · 인식 유형 도출, 유형별 비교분석 |

1) Q모집단 구성

본 연구에서는 예술지원사업 대상자들의 경험을 종합하여, 심층면담, 개방형 질문지를 통하여 Q모집단을 추출하였다. 먼저 무용전문가 3명과 전문기관 관계자 2명을 통하여 개방형 질문지를 구성한 후에 지원사업 수혜경험이 있는 무용안무가들 15명을 Q모집단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개방형 질문지를 수거하고 이들 중 편의표집방법으로 5명을 선정하여 개방형 질문지의 답변에 대한 1:1면담을 실시하였다.

2) Q표본 및 P표본 선정

① 진술문(Q-statement)의 작성

개방형질문지를 통한 응답을 토대로 Q진술문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3차례 개별 인터뷰를 진행 하였다. Q모집단을 범주화하기 위하여 본래의 자료와 범주화된 주제와 내용이 타당한지, 분류된 진술문들이 주제에 맞는

지에 대하여 무용전문가와 관련기관 전문가와 삼각검증법을 통해 검토 및 자문을 구하였다. 최초 38개의 진술문에서 중복되는 진술문과 불필요한 내용을 제외하고 총 34개의 Q표본의 표집이 완료된 후 Q분류를 위한 Q카드 제작단계로 들어갔다. Q표본 진술문은 작품창작관련 7문항, 예술가의 경제 및 행정관련 17문항, 예술가의 자부심 관련 7문항, 기타 3문항으로 총 34문항으로 선정되었다.

② P-표본 선정단계

연구에 참여하기 위해 선정된 응답자들을 P표본 이라고 한다. 무용분야 특성상 모집인원도 적고 수혜자들도 소규모더라도 특정한 요인에 속한 사람들의 비율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소표본 원칙(Small Sample Doctrine)에 의거하여 무용예술 지원사업을 받은 안무가들 중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무용인들을 포함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경험과 인식유형을 분석하고자 성별, 전공계열, 경력,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P표본을 30명으로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유형별로 나뉘지 않는 P표본을 제외하고 30명에서 26명으로 총 4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졌다.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방법으로 활용한 구체적인 P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P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ID | 참여자 | 성별 | 연령대 | 전공 | 경력 | ID | 참여자 | 성별 | 연령대 | 전공 | 경력 |
|----|-----|----|-----|------|-----|----|-----|----|-----|------|-----|
| 1 | L | 여 | 30대 | 한국무용 | 12년 | 16 | K | 남 | 50대 | 발레 | 37년 |
| 2 | Y | 남 | 40대 | 발레 | 24년 | 17 | K | 여 | 30대 | 현대무용 | 10년 |
| 3 | L | 여 | 40대 | 현대무용 | 17년 | 18 | K | 남 | 30대 | 발레 | 10년 |
| 4 | K | 남 | 40대 | 현대무용 | 25년 | 19 | L | 남 | 30대 | 현대무용 | 13년 |
| 5 | C | 남 | 40대 | 현대무용 | 25년 | 20 | A | 남 | 40대 | 현대무용 | 13년 |
| 6 | C | 남 | 30대 | 한국무용 | 10년 | 21 | N | 남 | 50대 | 발레 | 35년 |
| 7 | L | 남 | 40대 | 현대무용 | 16년 | 22 | J | 여 | 50대 | 발레 | 38년 |
| 8 | K | 여 | 30대 | 한국무용 | 15년 | 23 | S | 남 | 40대 | 발레 | 20년 |
| 9 | K | 여 | 30대 | 한국무용 | 12년 | 24 | S | 여 | 40대 | 한국무용 | 20년 |
| 10 | J | 남 | 40대 | 한국무용 | 25년 | 25 | C | 여 | 40대 | 발레 | 25년 |
| 11 | K | 남 | 40대 | 현대무용 | 17년 | 26 | J | 남 | 40대 | 발레 | 23년 |
| 12 | K | 남 | 40대 | 한국무용 | 20년 | 27 | K | 남 | 50대 | 현대무용 | 30년 |
| 13 | S | 여 | 30대 | 한국무용 | 14년 | 28 | K | 여 | 30대 | 한국무용 | 18년 |
| 14 | P | 여 | 30대 | 한국무용 | 14년 | 29 | J | 여 | 40대 | 한국무용 | 20년 |
| 15 | J | 남 | 30대 | 현대무용 | 12년 | 30 | S | 여 | 50대 | 발레 | 32년 |

*ID 27~30은 유형별로 나뉘지 않는 P표본

2.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는 예술지원사업을 받은 안무가들에 대한 인식유형 특성과 각 유형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다. 이를 위해 2개의 연구문제가 설정되었으며 인식유형을 알아볼 수 있는 Q분류를 먼저 실시했다. Q분류를 통해 나타난 지원사업을 받은 대상자의 인식유형 특성을 해석한 뒤, 각 유형별로 지원사업에 대한 관점을 통하여 지원사업의 지향점을 찾고자 개별 인터뷰를 보조적으로 실시했다.

자료처리 및 Q카드 분석으로 안무가들의 인식유형에 관하여 수집한 자료는 Q카드가 놓인 분포도 위치에 따라서 점수화하여 코딩작업 후 입력된 자료는 PQ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요인분석은 주요인 분석(Principle Component Factor Analysis)방법과, 회전방식은 베리맥스(Varimax)를 사용하였다. 이상적인 요인과 전체 변량에 대한 유형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하여 고유치(Eigenvalues) 1.0 이상인 인자 유형만을 선택하고, 각 유형간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유형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3. 타당도 및 신뢰도

Q연구방법에서 신뢰도 검사는 시간 간격을 두고 보통 2명~6명 정도에게 Q샘플의 분류를 재실시하였다. Q방법을 이용한 연구에서도 각 Q샘플에 대한 신뢰도 검사의 인원을 3명, Q샘플 분류 후 바로 1명, 3일 뒤에 1명, 일주일 뒤에 1명이 두 번째 Q소팅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신뢰도 검사 인원을 5명, Q샘플 분류 후에 바로 3명, 3일 뒤에 2명, 일주일 뒤에 마지막으로 1명이 두 번째 Q소팅 작업까지 실시하였다.

Ⅲ. 무용안무가의 예술지원사업 인식 유형

1. Q 요인분석

Q 요인분석을 통해 예술지원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무용안무가들이 경험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유형을 파악하고 인식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Q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문무용예술지원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무용수들의 경험에 대한 각 유형의 요인고유값(Eigen Value)과 설명변량을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추출된 4가지 요인은 전체 변량의 53.6% 즉 4가지 유형을 모두 합한 누적변량은 53.6%로 이는 전문무용예술지원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무용수들의 경험에 대한 설명량을 말한다. 각 요인별 설명력은 1요인은 29%, 2요인은 39%, 3요인은 47%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요인분석에서 적정요인의 기준은 요인 고유치(Eigen Value)가 1을 기준으로 그 이상인 것에 비추어보았을 때, 4요인 모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이순목, 1995).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누적 분산이 50%를 초과하는 4번째 요인을 추출할 요인의 수로 최종 결정하였다.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을 포함한 30명 중에서 26명의 P 표본을 4개의 하위집단으로 구성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였다.

표 3. Q 요인분석 결과

| 요인 수 | 요인고유값 Eigen-value | 설명변량 Variance % | 누적변량 Cumulative % |
|------|-------------------|-----------------|-------------------|
| 1 | 7.565 | 29.098 | 29.098 |
| 2 | 2.487 | 9.567 | 38.666 |
| 3 | 2.104 | 8.095 | 46.761 |
| 4 | 1.774 | 6.826 | 53.587 |
| 5 | 1.505 | 5.791 | 59.378 |
| 6 | 1.387 | 5.334 | 64.713 |
| 7 | 1.252 | 4.818 | 69.531 |
| 8 | 1.228 | 4.723 | 74.255 |
| 9 | 1.078 | 4.146 | 78.402 |
| 10 | 0.877 | 3.374 | 81.776 |
| 11 | 0.813 | 3.130 | 84.906 |
| 12 | 0.740 | 2.847 | 87.754 |
| 13 | 0.498 | 1.917 | 89.671 |
| 14 | 0.445 | 1.714 | 91.386 |
| 15 | 0.417 | 1.606 | 92.993 |
| 16 | 0.376 | 1.447 | 94.440 |
| 17 | 0.344 | 1.325 | 95.766 |
| 18 | 0.281 | 1.083 | 96.849 |
| 19 | 0.216 | 0.831 | 97.681 |
| 20 | 0.206 | 0.794 | 98.475 |

| | | | |
|----|-------|-------|--------|
| 21 | 0.144 | 0.555 | 99.030 |
| 22 | 0.094 | 0.362 | 99.393 |
| 23 | 0.059 | 0.227 | 99.620 |
| 24 | 0.048 | 0.187 | 99.807 |
| 25 | 0.029 | 0.112 | 99.919 |
| 26 | 0.020 | 0.080 | 100 |

본 연구에서 PQ method(ver.2.3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 분석을 한 결과 Eigen values 값의 크기가 1이상인 것은 모두 9개로 추출되었다. 일반적으로 요인의 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개념적으로 의미가 있는 요인 선정 방법과 높게 적재된 두 명 이상의 요인을 선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누적변량과 설명변량을 함께 고려하고, 이론적인 의미와 개념적인 의미를 고려하여, 유형별로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4개의 요인을 최종 결정하였다. 최종 4개의 요인은 <표 4>과 같다.

표 4. 요인분석표

| id | 1 | 2 | 3 | 4 |
|--------|-------|-------|-------|-------|
| No. 1 | .463 | .215 | .332 | .194 |
| No. 6 | .654 | .184 | -.354 | .306 |
| No. 9 | .706 | .150 | .298 | -.138 |
| No. 10 | .610 | -.106 | .550 | .087 |
| No. 11 | .753 | .163 | .058 | -.116 |
| No. 15 | .792 | .054 | -.152 | .104 |
| No. 16 | .646 | .254 | .314 | .067 |
| No. 17 | .523 | -.211 | .179 | .431 |
| No. 23 | .652 | .033 | .299 | .407 |
| No. 25 | .508 | .357 | -.113 | .054 |
| No. 2 | .333 | .422 | .265 | .007 |
| No. 3 | .094 | .704 | .298 | -.137 |
| No. 4 | .037 | .850 | .026 | .029 |
| No. 13 | .480 | .529 | .397 | -.111 |
| No. 19 | .366 | .455 | .237 | .402 |
| No. 24 | -.121 | .592 | -.377 | .203 |
| No. 5 | .368 | .018 | .455 | .223 |
| No. 7 | .256 | .301 | .545 | .442 |
| No. 8 | .356 | .349 | .546 | -.243 |
| No. 18 | .175 | -.03 | .677 | .200 |
| No. 22 | -.158 | .110 | .652 | -.002 |
| No. 26 | .143 | .267 | .510 | -.349 |
| No. 12 | .184 | .119 | .120 | .494 |
| No. 14 | .138 | .051 | .065 | .615 |
| No. 20 | .124 | .094 | .122 | .672 |
| No. 21 | .366 | .455 | .237 | .492 |

2. 유형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Q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총 4개의 집단으로 P표본을 분류하였으며, 각 집단별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5>과 같다. 연구대상 P표본은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을 포함한 30명이었으며, 그 중 26명이 유형 분류에 사용되었다. 유형1에 10명, 유형2에 6명, 유형3에 6명, 유형4에 4명으로 분류되었다.

각 유형에 따른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계수가 높을수록 상관관계가 깊고, 계수가 낮아져 0에 가까울수록 독립적인 관계임을 보여준다. 김흥규(1992)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유형간의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지만, Q 방법론에선 높은 상관계수가 두 유형 간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고 있지는 않는다. 각 유형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5>와 같다.

표 5. 유형별 P표본의 구성 및 총 변량

| 유형 | No. | 성별 | 연령대 | 전공 | 경력 | 요인가중치 |
|---------------|-----|-----|-----|------|------|-------|
| 유형1 (N=10) | 1 | 여 | 30대 | 한국무용 | 12년 | .463 |
| | 6 | 남 | 30대 | 한국무용 | 10년 | .654 |
| | 9 | 여 | 30대 | 한국무용 | 12년 | .706 |
| | 10 | 남 | 40대 | 한국무용 | 25년 | .610 |
| | 11 | 남 | 40대 | 현대무용 | 17년 | .753 |
| | 15 | 남 | 30대 | 현대무용 | 12년 | .792 |
| | 16 | 남 | 50대 | 발레 | 37년 | .646 |
| | 17 | 여 | 30대 | 현대무용 | 10년 | .523 |
| | 23 | 남 | 40대 | 발레 | 20년 | .652 |
| | 25 | 여 | 50대 | 발레 | 25년 | .508 |
| 유형2 (N=6) | 2 | 남 | 40대 | 발레 | 24년 | .422 |
| | 3 | 여 | 40대 | 현대무용 | 17년 | .704 |
| | 4 | 남 | 40대 | 현대무용 | 25년 | .850 |
| | 13 | 여 | 30대 | 한국무용 | 14년 | .529 |
| | 19 | 남 | 40대 | 현대무용 | 18년 | .455 |
| 유형3 (N=6) | 24 | 여 | 40대 | 한국무용 | 20년 | .592 |
| | 5 | 남 | 40대 | 현대무용 | 25년 | .455 |
| | 7 | 남 | 40대 | 현대무용 | 16년 | .545 |
| | 8 | 여 | 30대 | 한국무용 | 15년 | .546 |
| | 18 | 남 | 30대 | 발레 | 10년 | .677 |
| 유형4 (N=4) | 22 | 여 | 50대 | 발레 | 38년 | .652 |
| | 26 | 남 | 40대 | 발레 | 23년 | .510 |
| | 12 | 남 | 40대 | 한국무용 | 20년 | .494 |
| | 14 | 여 | 30대 | 한국무용 | 14년 | .615 |
| | 20 | 남 | 40대 | 현대무용 | 13년 | .672 |
| 21 | 남 | 50대 | 발레 | 35년 | .492 | |

3. 유형별 세부적인 특성

앞선 Q 요인분석을 통해 예술지원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무용수들이 경험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유형을 파악한 결과, 아래와 같은 4가지 형태의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이에 각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 명명하기 위해 Q 시트에 분류된 점수를 기준으로 절대값 1.5 이상의 Q 문항들을 활용하였으며, 각 집단에 포함된 P표본의 인터뷰 내용에 근거하여 무용예술지원 사업에 대한 인식에 따른 집단을 명명하였다.

1) 제1유형: 작품 창작형

제1유형의 특성을 보여주는 Q진술문은 <표 6>과 같이 높은 값,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한 항목이 Q3, Q14, Q18, Q23의 4개로 나타났고, 낮은 값, 매우 부정적인 답변을 제시한 항목이 Q7, Q9, Q17, Q25, Q26의 5개로 나타났다.

표 6. 제1유형의 특성을 보여주는 Q 진술문

| 높은 값을 가진 Q 진술문 | 낮은 값을 가진 Q 진술문 |
|-------------------------------------|---------------------------------|
| (3)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공연 기회를 제공한다. | (7)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작품을 질적으로 향상 시킨다. |
| (14)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실험, 시도를 가능하게 한다. | (9)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작품의 신뢰도를 높인다. |
| (18)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창작, 공연, 제작비용을 제공한다. | (17)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꾸준한 작품활동을 지원한다. |
| (23)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예술가의 인건비를 높여야 한다. | (25)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원활한 연습환경을 조성한다. |
| | (26)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연습실을 제공한다. |

제1유형에 속한 응답자들은 총 10명으로 <표 7>에 나타난 것과 같이 +1 이상의 표준점수(Z-score)를 나타내는 항목이 4개, 표준점수가 -1 이하인 항목이 5개로 나타났다. ‘(23)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예술가의 인건비를 높여야 한다.(Z=2.8)’, ‘(18)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창작, 공연, 제작비용을 제공한다.(Z=2.4)’, ‘(3)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공연 기회를 제공한다.(Z=2.3)’, ‘(14)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실험, 시도를 가능하게 한다.(Z=2.0)’ 등의 항목들이 제 1유형의 특성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다.

표 7. 제1유형 대표 Q 진술문과 표준점수(Z-Score)

| 제1유형에서 높은 값을 가진 Q 진술문 | Z-score |
|--|-------------|
| (3)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공연 기회를 제공한다. | +2.3 |
| (14)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실험, 시도를 가능하게 한다. | +2.0 |
| (18)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창작, 공연, 제작비용을 제공한다. | +2.4 |
| (23)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예술가의 인건비를 높여야 한다. | +2.8 |
| 제1유형에서 낮은 값을 가진 Q 진술문 | Z-score |
| (7)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작품을 질적으로 향상 시킨다. | -2.2 |
| (9)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작품의 신뢰도를 높인다. | -2.3 |
| (17)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꾸준한 작품활동을 지원한다. | -2.1 |
| (25)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원활한 연습환경을 조성한다. | -2.4 |
| (26)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연습실을 제공한다. | -2.9 |

위의 <표 7>결과는 제1유형에 속한 사람들은 작품에 대한 집중과 창작을 위해 예술가에 대한 투자로서 인건비가 중요하며, 실질적으로 창작, 공연, 제작에 필요한 비용이 작품에 집중을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유형에서 말하는 작품 창작의 매개 요소라 함은 작품제작에 필요한 인력, 창작 공간, 소품, 발표 공간, 홍보 등을 말한다. 이에 제1유형에서 매우 부정하고 있는 진술문이 ‘(26)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연습실을 제공한다.(Z=-2.9)’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창작 매개 요소 중 창작활동에 대한 공간이 부족함을 발견하였다. 백지연(2009)에서도 안무가가 공연에서 가장 중요한 무용수 섭외와 연습 공간 확보의 문제에 대한 어려움으로 나타났다는 결과와 특히 젊은 안무가들이 연습 공간의 확보 문제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제1유형에 속하는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특히 신인안무가들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연구 대상자의 중요도에 따라 9점 척도(-4에서 +4까지) 진술문 배치 및 강제분류, 양극단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를 보조적으로 면담할 결과 제1유형에서 제일 높은 (23)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예술가의 인건비를 높여야 한다.(Z=2.8). ‘(18)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창작, 공연, 제작비용을 제공한다.(Z=2.4)’ 2가지의 진술문을 선택한 안무가들 대부분 인건비의 책정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지원사업을 통하여 창작하는 제공을 받음으로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받는 의견 등으로 나타났다.

인건비와 출연료는 너무 높여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인건비에 있어서 대극장의 경우 스태프비용만 해도 천만원 넘어가지요, 또 무대감독 크루비용 포함해서 거의 3/2를 가져가요. 제작진행하는 인건비

도 그렇고 그러다보니 안무가는 자부담을 많이 쓸수 밖에 없어요. (참여자 J 경력25년)

무용예술지원 사업이 선정되면 당연히 공연기회를 제공하는 부분과, 지원사업의 대부분 사업내용 중 창작이나 공연이든 제작비용부분이 80프로 정도 제공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동의 해요. (참여자 S 경력14년)

이처럼 제1유형에 속한 사람들은 예술지원사업을 통해 예술가 자신의 인건비, 직접적인 창작, 공연, 제작비용을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직접적인 지원의 중요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창작매개 요소인 연습실제공에 대한 필요성 또한 중요하게 여기는 유형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제1유형을 ‘작품창작형’으로 명명하였다.

2) 제2유형: 작품 경제형

제2유형의 특성을 보여주는 Q진술문은 <표 8>과 같이 높은 값,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한 항목이 Q3, Q23, Q24, Q31, Q32의 5개로 나타났고, 낮은 값, 매우 부정적인 답변을 제시한 항목이 Q4, Q20, Q26, Q27의 4개로 나타났다.

표 8. 제2유형의 특성

| 높은 값을 가진 Q 표본 | 낮은 값을 가진 Q 표본 |
|------------------------------------|-------------------------------------|
| (3)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공연 기회를 제공한다. | (4)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작품에 필요한 물품을 풍족하게 한다. |
| (23)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예술가의 인건비를 높여야 한다. | (20)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인건비를 제공한다. |
| (24)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자체부담금의 부담이 있다. | (26)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연습실을 제공한다. |
| (31)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잘 해야 한다. | (27)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공연장 대관을 제공한다. |
| (32)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정산 처리가 어렵다. | |

제2유형에 속한 응답자들은 총 6명으로 <표 9>에 나타난 것처럼 +1 이상의 표준점수(Z-score)를 나타내는 항목이 5개, 표준점수가 -1 이하인 항목이 4개로 나타났다. ‘(23)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예술가의 인건비를 높여야 한다.(Z=2.3)’, ‘(24)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자체부담금의 부담이 있다.(Z=2.1)’, ‘(32)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정산 처리가 어렵다.(Z=1.6)’, ‘(3)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공연 기회를 제공한다.(Z=1.5)’, ‘(31)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잘 해야한다.(Z=1.5)’ 등의 항목들이 제2유형의 특성을 명확하게 나타내주고 있다.

표 9. 제2유형 대표 Q 진술문과 표준점수(Z-Score)

| 제2유형에서 높은 값을 가진 Q 진술문 | Z-score |
|--|-------------|
| (3)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공연 기회를 제공한다. | +1.5 |
| (23)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예술가의 인건비를 높여야 한다. | +2.3 |
| (24)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자체부담금의 부담이 있다. | +2.1 |
| (31)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잘 해야한다. | +1.5 |
| (32)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정산 처리가 어렵다. | +1.6 |
| 제2유형에서 낮은 값을 가진 Q 진술문 | Z-score |
| (4)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작품에 필요한 물품을 풍족하게 한다. | -2.1 |
| (26)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연습실을 제공한다. | -3.5 |
| (27)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공연장 대관을 제공한다. | -2.0 |

제2유형에 속한 사람들은 작품에 대한 자체적인 투자의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자신의 작업을 위해서는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작업하는 과정에서 정산처리와, 사업계획서 작성은 예술지원사업 선정 여부와 결부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기획에 대한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유형에서 매우 부정하고 있는 진술문이 '(26)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연습실을 제공한다.(Z=-2.9)'인 것으로 즉, 연습실은 제공받지 못한다는 매우 부정적 의미로 제1유형과 같이 공간을 제공받는 부분이 작품을 기획하고 투자하는데 있어서 중요시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매우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진술문 (23) 전문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예술가의 인건비를 높여야 한다는 점이 제1유형의 연구결과와 동일하지만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를 면담한 결과 상반되는 의견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요도에 따라 9점 척도(-4에서 +4까지) 진술문 배치 및 강제분류, 양극단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를 보조적으로 면담한 결과 '(23)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예술가의 인건비를 높여야 한다.(Z=2.3)', (24)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자체부담금의 부담이 있다.(Z=2.1), 두 가지 진술문을 선택한 응답자들은 예술 지원사업을 통해 예술가 자신의 자부담과 지원사업의 정산과 기획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은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로 인건비 뿐 아니라 자체부담금의 중요성과 지원의 대한 기획과 투자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예술가들에게 책정되어 있는 인건비 안에 다른 사례비의 비중이 크다보니 결국 부족한 상황이 닦혔을때는 무용수출연료가 제일먼저 삭감이 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이 안무자로서 참 슬픈것 같아요. 그러나 인건비를 높여야 하는건 너무 동의하지만 좋은 작품을 위해서는 자부담이 들더라도 좋은 무용수에 투자해야겠지요? (참여자K 경력17년)

지원에 선정된 작품들 중 자체부담금 안에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지원금의 분별 부족한 부분이 많다 보니 작품과 무용수의 질적향상을 위해서는 자체부담이 있을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니 저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얼마전 지원사업에서도 촬영비, 사진, 분장, 작곡비 등 제가 다 지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지원사업을 받는 입장으로는 참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참여자Y 경력24년)

이처럼 제2유형의 응답자들은 인건비의 대한 고민은 하고 있지만 작업을 위해서는 자부담의 부담을 느끼더라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작업하는 과정에서 정산처리와, 사업계획서 작성은 곧 지원사업 선정 여부와 결부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유형으로 제2유형을 '작품 경제형' 으로 명명하였다

3) 제3유형: 예술가의 행정형

제3유형의 특성을 보여주는 Q진술문은 <표 10>와 같이 높은 값,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한 항목이 Q1, Q22, Q23, Q31의 4개로 나타났고, 낮은 값, 매우 부정적인 답변을 제시한 항목이 Q21, Q26, Q27, Q34의 4개로 나타났다.

표 10. 제3유형의 특성

| 높은 값을 가진 Q 표본 | 낮은 값을 가진 Q 표본 |
|-----------------------------------|---|
| (1)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창작활동의 기반을 제공한다. | (21)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작품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가능하게 한다. |
| (22)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작품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 | (26)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연습실을 제공한다. |
| (23)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예술가의 인건비를 높여야 한다. | (27)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공연장 대관을 제공한다. |
| (31)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잘 해야한다. | (34)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절차가 간소화되어야 한다. |

제3유형에 속한 응답자들은 총 6명으로 <표 11>에 나타난 것처럼 +1 이상의 표준점수(Z-score)를 나타내는 항목이 4개, 표준점수가 -1 이하인 항목이 4개로 나타났다. (23)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예술가의 인건비를

높여야 한다.(Z=3.8)', (22)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작품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Z=2.6), '(31)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잘 해야한다.(Z=2.0)', '(1)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창작활동의 기반을 제공한다.(Z=1.5)' 등의 항목들이 제 3유형의 특성을 명확하게 나타내주고 있다.

표 11. 제3유형 대표 Q 진술문과 표준점수(Z-Score)

| 제3유형에서 높은 값을 가진 Q 진술문 | Z-score |
|--|-------------|
| (1)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창작활동의 기반을 제공한다. | +1.5 |
| (22)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작품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 | +2.5 |
| (23)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예술가의 인건비를 높여야 한다. | +3.8 |
| (31)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잘 해야한다. | +2.0 |
| 제3유형에서 낮은 값을 가진 Q 진술문 | Z-score |
| (21)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작품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가능하게 한다. | -2.3 |
| (26)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연습실을 제공한다. | -2.6 |
| (27)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공연장 대관을 제공한다. | -2.3 |
| (34)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절차가 간소화되어야 한다. | -2.0 |

이 유형에서는 '(23)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예술가의 인건비를 높여야 한다.(Z=3.8)', '(22)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작품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Z=2.6)와 '(31)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잘 해야한다.(Z=2.0)', '(1)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창작활동의 기반을 제공한다.(Z=1.5)'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제3유형에 속한 사람들이 작품에 대한 집중과 창작을 위해 실제 실연하는 예술가를 위한 인건비가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으며, 작품규모를 고려한 지원금은 작품의 질적인 향상과 미래지향적인 비전까지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유형에서 매우 부정하고 있는 진술문이 '(26)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연습실을 제공한다.(Z=-2.9)' 와 유의한 맥락으로 (27)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공연장 대관을 제공한다.(Z=2.3)인 것을 미루어 보아 작품 활동에는 직접적인 지원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안무가들에게 있어서 무용전용공간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에 대한 구축을 위한 육성공간으로서 확대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공간에 대한 지원정책을 관리하는 기관에서의 정책들이 입안되고 실천되어야 한다(이숙재, 박지원, 2009, p.70). 두 가지 진술문에 응답자 대부분의 경우가 대관료지원사업과 연습실 지원사업 책정에 있어서 공간 문제와 대관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 따라서 창작환경 공간에 대한 확대 문제를 구축할 수 있는 체계적인 사업이 보완되기를 지향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요도에 따라 9점 척도(-4에서 +4까지) 진술문 배치 및 강제분류, 양극단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를 보조적으로 면담할 결과 '(23)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예술가의 인건비를 높여야 한다.(Z=3.8)', '(22)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작품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Z=2.6)와 같이 작품규모와 인건비를 동일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습실 및 극장 공간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곧 작품의 질적인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공연장 대관제공 지원사업이 있긴한데 00문화재단 공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연희문화창작촌, 문래 예술공장과 같은 공간이라는 한정적인 경우다 보니 작품에 따라서 안맞는 경우들이 많은 공간에 대한 지원을 받아도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참여자L 경력12년)

작품규모에 따라 지원사업은 달라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더라구요. 저는 특히 금액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예를 들어 5천만원 정도를 예상했어도 예산은 적게 받게 되버리면 거기에 맞춰 가버리게 되니까요.(참여자C 경력 25년)

이처럼 제3유형의 속한 응답자들은 안무가들의 창작환경 공간에 대한 확대문제를 구축할 수 있는 체계적인 사업이 보완되기를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3유형에 속한 사람들은 예술 지원사업을 통해 인건비의 중요성과 작품의 규모가 작품의 질적인 향상 여부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유형으로 여겨 '예술가의 행정형'으로 명명하였다.

4) 제4유형: 예술가형

제4유형의 특성을 보여주는 Q진술문은 <표 12>와 같이 높은 값,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한 항목이 Q1, Q3, Q10, Q22의 4개로 나타났고, 낮은 값, 매우 부정적인 답변을 제시한 항목이 Q4, Q26, Q32, Q33의 4개로 나타났다.

표 12. 제4유형의 특성

| 높은 값을 가진 Q 표본 | 낮은 값을 가진 Q 표본 |
|---------------------------------|-------------------------------------|
| (1)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창작활동의 기반을 제공한다. | (4)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작품에 필요한 물품을 풍족하게 한다. |
| (3)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공연 기회를 제공한다. | (26)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연습실을 제공한다. |
| (10)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작품 개발에 도움이 된다. | (32)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정산 처리가 어렵다. |
| (22)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작품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 | (33)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사업 변경이 어렵다. |

제4유형에 속한 응답자들은 총 4명으로 <표 13>에 나타난 것과 같이 +1 이상의 표준점수(Z-score)를 나타내는 항목이 4개, 표준점수가 -1 이하인 항목이 4개로 나타났다. '(3)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공연 기회를 제공한다.(Z=3.2)', '(1)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창작활동의 기반을 제공한다.(Z=2.0)', '(10)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작품 개발에 도움이 된다.(Z=1.7)', '(22)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작품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Z=1.7)' 등의 항목들이 제 4유형의 특성을 명확하게 나타내주고 있다.

표 13. 제4유형 대표 Q 진술문과 표준점수(Z-Score)

| 제4유형에서 높은 값을 가진 Q 진술문 | Z-score |
|-------------------------------------|---------|
| (1)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창작활동의 기반을 제공한다. | +2.0 |
| (3)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공연 기회를 제공한다. | +3.2 |
| (10)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작품 개발에 도움이 된다. | +1.7 |
| (22)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작품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 | +1.7 |
| 제4유형에서 낮은 값을 가진 Q 진술문 | |
| (4)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작품에 필요한 물품을 풍족하게 한다. | -2.2 |
| (26)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연습실을 제공한다. | -2.2 |
| (32)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정산 처리가 어렵다. | -2.0 |
| (33)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사업 변경이 어렵다. | -2.5 |

이 유형에서는 '(3)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공연 기회를 제공한다.(Z=3.2)', '(1)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창작활동의 기반을 제공한다.(Z=2.0)'와 '(10)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작품 개발에 도움이 된다.(Z=1.7)', '(22)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작품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Z=1.7)'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제4유형에 속한 사람들이 작품에 대한 집중과 창작에 있어서 공연기회와, 창작활동의 기반을 제공받음으로서 작품개발에 까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 유형의 안무가들의 보조적인 면담결과 지원사업을 통해 예술가의 자부심을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유형에서 매우 부정하고 있는 진술문이 '(33)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사업 변경이 어렵다.(Z=-2.5)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전문 무용예술 지원사업의 사업 변경은 어렵게 작용하

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중요도에 따라 9점 척도(-4에서 +4까지) 진술문 배치 및 강제분류, 양극단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를 보조적으로 면담한 결과 (3)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공연 기회를 제공한다.(Z=3.2), '(1)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창작활동의 기반을 제공한다.(Z=2.0)' 두 가지 진술문을 응답한 사람들은 작품을 만드는 창작자로서 자기개발에 도움이 되었으며 지원사업을 통하여 기반을 제공받음으로서 작품에 대한 책임감과 목표가 뚜렷이 나타났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곧 예술가로서, 안무가로서 자부심과 결부되는 것으로 보인다. 안무가들에게 지원사업은 작품을 만드는 창작자로서 자기개발에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도 나타났다. 조금 다른 의견으로는 작품규모의 대한 진술문에 대한 면담으로 선형적이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작품이나 안무가들에 대한 차등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사실 저는 지원금의 액수를 떠나서 지원을 받음으로서 기회가 생겼다는 것에 큰 의미를 그에 따라서 작품의 질도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원사업의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구요. (참여자C 경력 10년)

지원사업 경우에는 창작활동을 기반을 다져주고 그 목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매우 동의 하는 것 같아요.(참여자A 경력13년)

공연활동을 위한 지원금이 없다면 공연 기회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다 보니, 지원사업을 통해서 공연 기회를 제공받는다는 건 당연히 맞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참여자L 경력16년)

신인 안무가들에게도 많은 기회를 제공 하는건 좋은데 계속 그런 사업 위주로 편중되게 되는 사업의 문제성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선발주자로 활동을 많이 하고 지금껏 유지해온 중견 안무가들에게 시간과 투자부분에 있어서 그 가치를 인정해줘야 하기 때문에 저는 작품이나, 안무가의 업적이든 그 부분에 맞게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참여자 J 경력23년)

이처럼 제 4유형의 안무가들은 지원금의 높은 의존도와 지원사업의 문제점 보다는 공연 기회와 작품을 위한 기반을 높여주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4유형에 속한 사람들은 전문 무용예술 지원사업을 통해 예술가의 자부심을 높이고 작품활동을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유형으로 여겨 '예술가형'으로 명명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1유형부터 제3유형까지 예술가의 인건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긍정적인 답변의 상위 순위를 차지한 것으로 보아, 무용예술 지원사업에서 예술가의 인건비 문제는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연습실의 제공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답변의 상위 순위로 나타나, 지원사업에서 실질적으로 연습실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안무가들의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지원의 필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으며, 특히 창작공간에 대한 창작환경에 있어서 부족한 경험은 현실적인 부분에서 가시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 제4유형에서는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창작활동의 기반을 제공받았다는 의견이 긍정적인 답변 상위 순위를 차지한 것으로 보아 지원사업을 통하여 창작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공연에 대한 예술가로서 자부심과 결부되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각 유형별로 안무가들의 상충되는 의견들은 있으나 대부분의 지원사업의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며, 안무가들의 창작역량 강화를 위하여 만족시켜줄 수 있는 지원사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문제점도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 14. 각 유형 대표 Q 진술문과 표준점수(Z-Score)

| 유형 | 대표 Q 진술문 | 표준점수 |
|------------------|--|-----------------|
| 제1유형 작품 창작형 | 제1유형에서 높은 값을 가진 Q 진술문 (23)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예술가의 인건비를 높여야 한다. | Z-score +2.8 |
| | 제1유형에서 낮은 값을 가진 Q 진술문 (26)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연습실을 제공한다. | Z-score -2.9 |
| 제2유형 작품 경제형 | 제2유형에서 높은 값을 가진 Q 진술문 (23)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예술가의 인건비를 높여야 한다. | Z-score +2.3 |
| | 제2유형에서 낮은 값을 가진 Q 진술문 (26)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연습실을 제공한다. | Z-score -3.5 |
| 제3유형 예술가의 행정형 | 제3유형에서 높은 값을 가진 Q 진술문 (23)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예술가의 인건비를 높여야 한다. | Z-score +3.8 |
| | 제3유형에서 낮은 값을 가진 Q 진술문 (26)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연습실을 제공한다. | Z-score -2.6 |
| 제4유형 예술가형 | 제4유형에서 높은 값을 가진 Q 진술문 (3)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공연 기회를 제공한다. | Z-score +3.2 |
| | 제4유형에서 낮은 값을 가진 Q 진술문 (33)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사업 변경이 어렵다. | Z-score -2.5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예술지원사업을 받은 무용안무가 중심으로 경험과 인식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무용 예술지원사업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무용예술 지원사업 대상자들의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유형을 파악함과 동시에 나아가 지원사업의 문제해결과 방향을 이끌어내는 데 목적을 두었다. 무용예술 지원사업은 여전히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예술 지원사업을 받은 대상으로 한 연구와 다양한 장르나 신인, 중견사업에 관한 연구까지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나 지원을 받은 무용안무가들이 원하는 지원사업의 방향을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Q방법을 적용하여 데이터를 도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각 유형에 따라 예술지원사업에 대하여 인식하는 요인에 있어서 4가지의 유형으로 도출되었으며, '제 1유형'은 '작품 창작형 (N=10)' 으로 직접적인 지원이 온전히 작품에 중요도로 결부되는 유형, '제 2유형'은 '작품 경제형(N=6)' 으로 지원에 대한 기획과 투자의 중요도가 높은 유형, '제 3유형'은 '예술가 행정형(N=6)' 으로 인건비와 작품의 규모가 작품의 질적인 향상 여부를 결정하는 유형, '제 4유형'은 '예술가 형(N=4)' 으로 지원사업을 통해 예술가의 자부심과 작품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무용안무가는 선택과 집중의 문제를 갖고 있었다. 선택부분에 있어서는 예술가 생계비의 높은 의존도와 창작비용과 창작환경에 대한 확대로 온전히 작품활동에 있어서 집중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의 문제에 있어서는 작품의 질 향상과 평가에 대한 명료화를 시킬 수 있는 차등지원과, 심사의 기준에 대한 체계적인 방향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지원사업 방향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종합해볼 때 연구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해 무용예술은 물론 타 분야의 예술지원사업에 변화가 큰 상황에서 무용예술 분야에서의 지원사업 현황을 본 연구에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하여 나온 결과 데이터는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의 주관적 유형을 나누고 무용안무가에 대한 유형별 연역적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예술계에 종사하는 자들을 신인, 중견, 경력, 원로

등으로 구분하고 사용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지원사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구분을 고려하여 평이한 구조 속에서 유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셋째, 지원 대상자의 실제 의견을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사용되었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예술지원사업에 대한 경험적 특성과 발전방향을 도출함으로써 예술지원사업의 변화 흐름과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한 눈에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무용예술 지원사업에 대한 선행연구도 없었고, 대상자에 대한 주관적 인식 분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방법론적으로 Q방법론을 적용하면서 개방형 질문지와 심층면담을 통한 사례연구, 문헌연구 등을 혼합한 방법론적 다원주의(methodological pluralism)를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김은주(2020)연구와 같이 양적연구 방법론 한계를 보완하고 다양한 작업을 실시하여 질적 연구의 한계점을 타당화시켰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무용예술 지원사업처럼 대상자의 폭도 좁고 선정 이후의 활동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현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후속되어야 할 연구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용예술 지원사업에 대한 계속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앞서 말했듯이 지원사업은 정책에 따라 변화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영역이기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조사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신인, 중견, 단체를 구분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의 주관적 유형을 나눔으로써 신인, 중견, 단체 유형 등을 체계적으로 분리하여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유형별 연역적 연구의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분석결과가 예술지원사업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동안 예술지원사업은 정부, 특정 재단의 목적과 진행 방식에 따라 공고되고 이에 예술가들이 지원하고 선정되는 수순으로 진행되어왔다. 이에 대한 무용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원사업의 방향에 영향을 주었는지는 알려진 바 없다. 이에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예술지원사업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명선(2004). 현대무용 안무가와 무용가의 심리상태가 즉흥표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강영아(2012). 안무가 성향에 따른 대전시립무용단의 정체성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고정민, 장신정, 장윤정(2019). 문화예술지원사업 추진상의 쟁점과 정책방향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전시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예술경영학회, 52(1), 39-73.
- 김미희(2016). 트리샤브라운(Trisha Brown)의 작품 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연구. 신문방송학 트랜스미디어연구소, 0(1), 1-19.
- 김운미(2017). 4차산업시대 한국춤의 글로벌 확산 전략 소고. 우리춤과 과학기술, 39, 9-40.
- 김은주(2020). Q방법론을 활용한 부모의 자녀가치 인식에 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정인(2014). 문화예술지원 거버넌스 분석, 기업 메세나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정책학회, 2, 1-23.
- 김지영, 김형남, 윤정은(2015). 문화예술정책의 맥락에서 ‘일상생활 속 무용의 확산’: 문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무용융성의 방안 모색. 한국체육학회지, 54(5), 691-703.
- 김흥규(1992). 주관성(Subjectivity) 연구를 위한 Q 방법론의 이해.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연구소, 6(1), 1-11.
- 백지연(2009). 젊은 안무가 지원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 오하진, 홍준희, 최우열(2019). 무용 안무의 은유적 표현이 정서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9(6), 291-301.
- 우혜영(2011). 무용예술 집중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의 뉴 거버넌스(New Governance) 모형.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윤나영(2018). 청년 무용가의 창작지원사업 수혜 경험에 관한 연구 ‘청년 무용가에 있어서 관객의 의미를 중심으로’. 무용역사기록학회, 50, 35-58.
- 유승관(2016). <한국 현대춤작가 12인전>의 작품 경향 연구 ‘남성 한국무용 안무가를 중심으로’. 무용역사기록학회 40 187-219.
- 이경희(2005). 라반동작분석법을 통한 현대무용의 안무성향 ‘마사 그라함과 머스 커닝햄 작품을 중심으로’. 대한무용학회, 43(0) 225-240.
- 이숙재, 곽지원(2009). 무용전용공간 지원사업의 개선방안. 한국무용학회, 9(1), 61-72.
- 이순목(1995). 아동 가족 연구를 위한 최신통계기법/요인분석, 한국아동학회, 1995(1), 47-75.
- 장지연, 윤수미(2019). 한국무용 안무가가 인식하는 ‘한국창작춤’의 유형과 특성, 한국무용연구학회, 37(4) 175-202.
- 조영미(2020). 남정호 작품의 특징 연구 -<유희 I>(1984), <풍선심장>(1986), <자화상>(1988)을 중심으로 영남춤학회誌, 8(3), 231-252.
- 차은주, 김중희(2018). 전략적 사고를 적용한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 분석. 문화예술교육연구, 13(2), 21-46.
- 한하경, 김인설(2020). 디지털 가상공간을 활용한 신규 공연예술 지원사업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20(6), 101-116.
- 황혜영(2012). 국공립 문화예술단체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방안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ABSTRACT

Perception Types of Choreographers on Art Support Programs: A Q Methodological Study

Sinyoung Ko* Hanyang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d by type the experiences and perceptions gained by 30 dancers with experience in performance and creation in the field of dance during art support projects from 2016 to 2020 and it conducted Q research methodology with the aim of presenting ways to develop diversified art support projects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Type 1 was a work creation type, with which direct support was found to be entirely related to importance in the work. Type 2 was a work economy type, which placed importance on planning and investment regarding support. Type 3 was an artist administration type, with which labor costs and scale determined the qualitatively improvement of the work. Type 4 was an artist type that enabled artist pride and work activities through support projects. So far, art support programs have been announced by the government or specific foundations in accordance with their missions and process, and recipients were selected among the artists who applied for the programs. It is uncertain whether the experts' opinions in the field of professional dance have influenced the direction of the support programs. Further research is necessary to present ways in which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can affect the future directions of art support programs. More effort would also be needed to make systematic improvements to the support policy and realize the innovation agenda.

Key words : choreographer, art support program for professional dance, art support programs, perception types, Q methodology

논문투고일: 2022.02.24.

논문심사일: 2022.04.05.

심사완료일: 2022.04.21.

* Instructor of Dance Department of Hanyang University / sy00282@hanyang.ac.kr